

## 韓國을 거울삼아서

◆本稿는 지난 5月 28일부터 30일까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亞細亞 太平洋 地域 圖書館 國際會議에 參席하고 歸國한 中國代表 張東哲(Mr. Daniel T.C. Chang=臺灣 國立中央圖書館 副館長)氏가 本 圖協 崔根滿 事務所長 앞으로 보내 온 6月 25日 字 大北 '大華晚報' 社說로 掲載한 '看韓國這面鏡子'의 譯이다. 國際會議를 前後로 約 一週日間 서울에 체류하면서 많은 資料를 蒐集해 간 바 있는 氏는 滯韓中 圖書館界를 爲始, 서울의 躍進相을 보고 甚히 感銘하면서 自國民도 韓國의 印象에서 다음 여섯가지 點은 꼭 본 받아야 할 것이라고 強調한 바 있다. 다음 글은 同 社說의 內容이다. (編輯者 註)

數年前 우리 나라(譯註=中國) 經濟의 迅速한 成長은 일찌기 世人의 耳目을 一新 시켰다. 그런데 最近 몇년 동안 韓國經濟의 100米 競走式인 突進의 發展은 더욱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刮目하게 하였다. 韓國이 놀랄만한 經濟成長을 獲得할 수 있었던 것은 眞實로 그 特殊한 客觀的 要素도 있었던 것이지만 主要한 것은 舉國의 上下가 모두 刻苦 努力하고 奮發 自強한 것에 힘입은 것이었다. 目下 韓國은 強敵이 邊境에 壓力을 加하고 內憂가 다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困難한 立場에 있으면서도 經濟面에서 이와 같이 뛰어난 成果를 이룬 것은 實로 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開發途上에 있는 亞細亞 各國에 대해 말하면 韓國經濟의 迅速한 復興은 確實히 解明하고 甚히 刺戟的인 實例이며 또한 모두들 거울 삼아야 할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韓國을 訪問하는 사람이 있지만, 今年 5月初에 다시금 特別히 한 訪問團을 組織하여 그곳에 가서 그의 行政 및 經濟의 發展相을 視察한 바 있다. 그들의 '訪韓所感'에 依하면, 韓國은 참으로 氣象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描寫되고 있다. 온 나라가 信念으로 가득차 있으며 元氣가 넘쳐 흐르고 있다. 정말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訪問團의 報告에서는 韓國이 各方面에서 飛躍的으로 發展할 수 있었던 主要한 까닭은 아래에 列擧하는 因素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첫째, 韓國民族은 勇氣를 가지고 邁進하는 精神을 具備하고 있는 것이다. 憂患을 싫것 겪고 난 뒤 사람들은 모두 奮發 自強할 수 있는 것이니 이로써 自立을 求하는 것이다. 둘째, 政策과 立法이 能히 配合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法規는 彈力性을 갖추고 있어 需要에 應하여 隨時로 修正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虛心坦懷하게 模倣할 수 있어서 남의 長點을 取하는데다가 또한 特色을 發揮할 수 있어서 創意를 많이 發揮하고 있다. 넷째, 完備된 公務員訓練體系가 있어서 公務員의 資質이 向上되어 있다. 다섯째, 大統領의 權限이 至極히 크다. 內閣에는 經濟企劃院이 設置되어 있어 協力 機能을 高度로 發揮할 수 있다. 여섯째, 軍事費는 겨우 總豫算의 20%를 占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各種의 建設費가 充足한 것이다. 勿論 訪問團은 짧은 期間에 '志馬看花'적으로 훑어 봤으니 浮光掠影(물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음)의 感은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列擧한 點들은 確實히 重視할 만한 價値가 있다.

틀어 놓고 말하면, 이렇게 韓國의 進步를 促成시킨 要因은 우리도 모두 具備하고 있다. 政府가 臺灣 澎湖로 退守한 뒤 破壞된 자국에서 오늘날은 經濟的 繁榮과 政治的 安定이란 局面을 이룩했다는 것은, 萬一 한 가닥 羞恥를 알고 奮發하는 自立 自強의 精神이 없었더라면, 또한 어찌 이룩될 수 있었겠는가? 行政의 革新, 立法의 配合, 教育의 發展과 訓練의 強化는 總統의 英明한 領導下에 韓國과 比較하여 原來 遜色이 없다. 甚至於 經濟企劃院 같은 機構는 各方面에서 비록 韓國經濟發展의 主動力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實은 우리 나라의 前에 있었던 '經安會'와 지금 行政院長이 親히 主制하고 있는 '經合會'와 더불어 本質的으로 큰 差異가 없는 것

日五十二月六年八十五國民華中



이다. 誠實하게 말하면, 오늘 날의 우리가 韓國과 比較하여 經濟發展上에 있어 조금 遜色이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總統이 懇曲하게 警告한 바와 같이 精神面에 있어 解弛함이 나타나서 各級의 行政幹部와 商工界의 人事들이 '新案의 追求' '行動의 追求'가 缺乏된데 있는 것 같다. '新案의 追求'에 勇敢할 수 없기 때문에 일마다 保守的이 되고 突進力이 缺乏되고 있는 것이며, '行動의 追求'를 勉勵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질 없이 劃劃한 것출 뿐 實行함이 없거나 或은 實行한다해도 徹底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一部人士들은 病魔는 알면서도 羞恥를 몰라, 外飾을 誇張하면서 基本을 追求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더욱 精神차리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결국 戰後의 新興國家인데, 朴大統領은 執政한 뒤 더욱 그로 하여금 嶄新한 時代로 邁進케 하였으므로 國民들이 모두 信念에 充滿하고 元氣가 潑刺할 수 있는 것이다. 信念이 있으므로서 失敗를 겁내지 않고 元氣가 있음으로써 困難은 克服되는 것이다. 萬若 韓國을 거울 삼아 한번 自我를 檢討해 본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國民의 自信을 培養하고 社會의 元氣를 激勵하여 行政의 效率를 提高하고 開拓精神을 鼓舞하는가 하는 點이 아마 가장 重要한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行政組織과 立法技術 方面의 長點에 대해서 는 다만 政府가 一步 하나가기만 한다면 쉽사리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옛 사람들의 말에 ' 걷는자는 恒常 目的地에 이르며, 일하는 者는 恒常

(22面에 繼續)

다. 그들의 報酬問題도 論外는 될 수 없으나 우선은 研究施設이 不充分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海外의 最新의 學術의인 文獻을 適期에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條件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마도 政府는 이러한 면에서 충격을 받고 科學技術 研究所(Kist)와 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의 必要性을 切感한 나머지 그동안 이의 設置를 서둘러서 지난 10月23日 同時에 新築開館을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韓國科學技術研究所는 Computer를 비롯한 最新의 研究施設을 갖추고 國內外의 科學技術分野의 文獻을 網羅的으로 迅速히 入手하여 繼續的으로 整備하고 特定한 科學技術研究計劃을 推進하는 同時에 各産業機關 및 政府機關에서 依賴되는 課題를 研究發展시켜 나 아갈 것이며,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는 Computer를 비롯한 最新의 情報媒介施設을 갖추는 同時에 國內外의 科學技術分野의 文獻을 網羅的으로 迅速히 蒐集하여 繼續的으로 整備하고 이를 必要로 하는 各機關과 個人에게 迅速하고 正確하게 普及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振興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 두 機關은 先進外國의 그것에 비하면 出發은 늦었으나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不可缺少한 存在로써 登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政府의 이에 대한 業績을 치하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들의 效果的인 運營과 積極的인 育成을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文化的인 效果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分野를 包含하는 綜合的인 情報센터도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設置보다도 國立中央圖書館이나 國會圖書館등의 既存의 機關이 그러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施設과 組織을 再整備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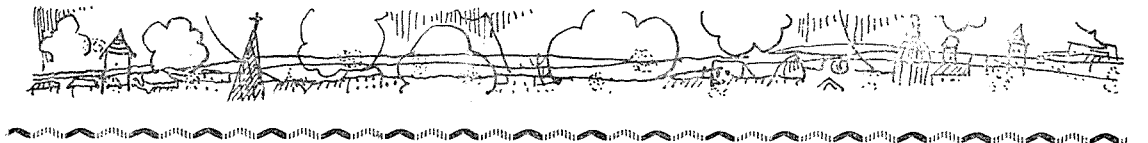
한편 政府는 數年前에 「공부하는 大學生, 研究하는 教授의 風土造成에 대한 計劃」을 發表하고, 이에 대한 많은 關心과 努力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學者나 研究者들에게도 前例없이 研究助成費를 支給하고

研究結果를 文敎部에 報告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報告書는 왜 現在까지 發表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研究結果가 널리 發表되어 그것이 다시 活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全然 無意味한 것이며 無價値한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것은 어떠한 內容, 어떠한 形態이든 迅速히 發表되어 그 研究結果를 基礎로하여 또다시 새로운 研究가 繼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筆者의 私見으로는 政府의 學風助成을 위한 施策은 研究助成費를 支給하는 그것보다도 우선 모든 研究施設을 充實히 하는 同時에 研究를 위한 海外의 學術的인 文獻資料를 組織的으로 항상 迅速히 國內 學界에 補給될 수 있도록 行政的으로 積極的인 措置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研究助成費는 어떠한 獨創的인 貢獻性이 있는 研究結果에 대한 報償費로 轉換하여 支給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일 것이다.

요컨대, 政府는 學風助成에 앞서 學術의 效果的인 發展을 위한 實際的인 條件造成에 盡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Chemical Abstracts*. Easton, pa., American Chemical Society Chemical Abstracts Service 1907~
- 2) *Biological Abstracts*, Philadelphia, 1926~
- 3) Bourne, Charles P. *American Document*. 13(12) 159~168 (1962)
- 4) Stone, C. Walter. *The Library Function Redefined. Library Trends*. Illinois, Univ. of Illinois, 1967 vol.16. No.2 p. 186.187
- 5) 崔昌均, 國內索引誌에 관하여, *圖書館學報* 第一輯 中央大學校圖書館學會 1968. p. 28~33
- 6) 千惠鳳, 書誌事業의 重要性에 대하여, *韓國圖書館協會編, 도협월보* 1969. 10(vol. 10, No. 8.) p.7~10
- 7) 平山健三著, *知識의整理*, 東京, 南江堂, 1965 p.31.
- 8) *ibid.* p. 32



(27面에서 繼續)

成功을 이룩한다' (行者常至·爲者常成)고 했다. 우리들은 韓國人의 長點을 단적으로 '實踐하는데 있다' (實幹)고 認定한다. 옳다고 認定되는것은 實行한다고 했으면, 實行하는 것이었지, 돌려 내거나 미루지 않으며, 잘 못이라고 認定되는것은, 即刻 고치었지 絕對로 外飾을 誇張하거나 彌縫하지 아니 했다. 그들의 法令은 隨時로 改正할 수 있으며 人事上의 新陳代謝는 더욱 姑息되지 아니 했다. 假令 우리들이 오늘날 韓國을 거울 삼는데 있어 다만 外表的인 類似性만 追求할 뿐, 그 精神의 所在은 仔細히 살피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그 一致點을 追求한다는 것은 바로 '寶石箱子를 사면서 그 속에 든 寶石을 돌려 주는 格'(買櫝還珠)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